

Digital Currency Watc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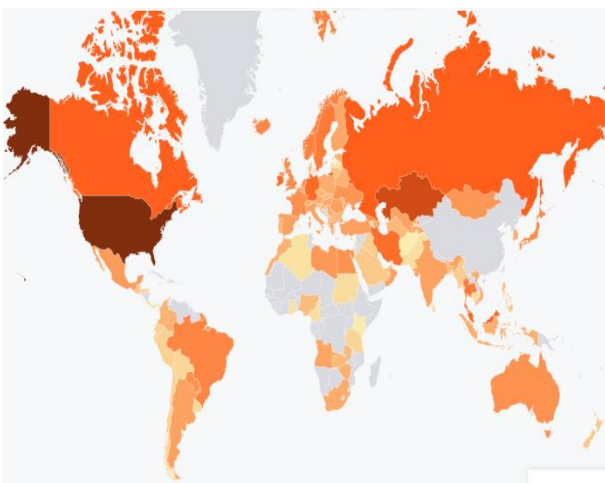


Analyst, 한대훈 / 3773-8515, handaehoon@sksec.co.kr

2021/10/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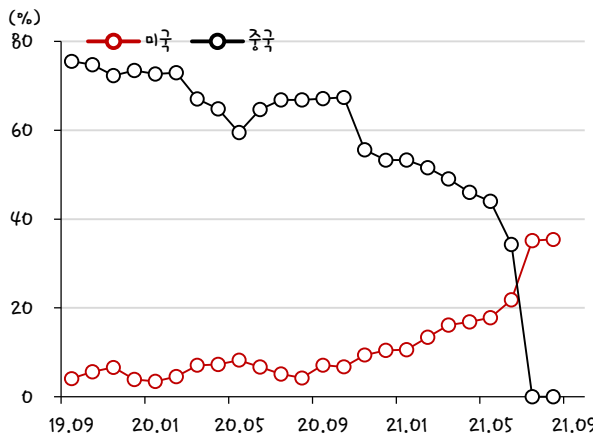
미국, 마침내 비트코인을 손에 넣다

비트코인 채굴 지도



자료: University of Cambridge, SK 증권

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추이



자료: University of Cambridge, SK 증권

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거래하고, 가장 많은 채굴장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이었다.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중국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. 중국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기 시작했고, 채굴도 금지했다. 한 때 후오비, OKex 등 중국계 거래소는 전세계 거래의 30%를 넘었지만, 지금은 10%대로 줄었고, 중국 채굴기업의 90%는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했다. 그리고 마침내 중국 본토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0%가 됐다. 해시레이트는 가상자산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채굴능력으로, 채굴이 많아지면 높아지고, 채굴이 적어지면 줄어든다. 그리고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했다. 미국 본토의 해시레이트는 35.4%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. 2019년 9월에 미국과 중국의 해시레이트가 각각 4.06%, 75.53%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2년 동안 시장의 주도권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간 셈이다.

중국을 계속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.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가상자산은 중국 정부입장에서 부담이고, 대신 CBDC 출범은 준비 중이다. 그 동안 중국발 뉴스에 따라 가격등락이 컸던 점을 생각해보면, 향후 중국의 영향력이 더 약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고, 이는 변동성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.

한편 제도권 편입을 준비했던 미국은 마침내 시장 주도권을 손에 얻었다. 미국 중심의 시장질서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. 이번달부터 발표될 비트코인 ETF의 승인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.